

동일 어원 차용어들의 의미 차이에 대하여

김춘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국어학 전공
chunye0511@hanmail.net

I. 머리말

II. ‘架子’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III. ‘寶貝’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IV.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V. 맺음말

I. 머리말

국어사 문헌 속에는 ‘투슈/투셔, 도서(圖書)처럼 동일한 대상을 어원으로 하면서 일정 기간 공존하는 단어쌍이 다수 존재한다. ‘가즈/개즈/가직, 가즈(架子), ‘다홍, 대홍(大紅), ‘망진, 망진(網巾), ‘목휘, 목화(木靴), ‘무명, 목면(木棉), ‘미라, 밀랍(蜜蠟), ‘보빅/보비/보배/보피, 보패/보퓌(寶貝), ‘스천/샤천, 스전(私錢), ‘즈우샤, 추사(縐紗), ‘즈지/즈디, 즈덕/즈적(紫的), ‘천량, 전량(錢糧), ‘체즈/테지, 텃즈/첩즈(帖子), ‘파란, 범랑(玳瑁), ‘햐쳐, 하쳐(下處), ‘아얌, 이엄(耳掩)/액엄(額掩), ‘휘양/휘항(揮項), 호항(護項)¹⁾ 등이 그러하다.²⁾ 이 공존형들은 한쪽은 한국 한자음(이하 동음(東音))으로 지칭이 반영된 어형이고 한쪽은 중국 한자음(이하 한음(漢音))으로 지칭이 반영된 어형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은 국어사 문헌 속에서 다양한 공존 양상을 드러내는데, 의미 차이가 없이 경쟁관계 속에 공존하다가 결국은 한쪽만 정착해 다른 한쪽은 사라지기도 하고, 의미 분화를 보이면서 공존하기도 하며, 어느 한쪽이 어원과 다른 한자 표기를 갖기도 한다.³⁾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형 중의 하나로서

- 1) 이중 ‘다홍, 대홍(大紅), ‘스천(私錢), ‘천량, 전량(錢糧), ‘테지, 텃즈(帖子), ‘파란/반랑(玳瑁)에 대해서는 金春月の 「낙선재본 『홍루몽』의 중국어 어휘 차용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2)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 2) 이중 ‘가즈, 다홍, 무명, 보빅, 스천, 천량, 테즈, 망진, 목휘, 미라, 즈우샤, 즈지, 햐쳐’ 등에 대해서는 李基文, 「近世中國語 借用語에 대하여」, 『亞細亞研究』 8-2(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채수록: 李基文,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991); 劉昌惇, 『語彙史研究』(國語國文學叢書)(二友出版社, 1980); 蕭悅寧, 『韓國語 近代漢音系 借用語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과 같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중국어 차용어로 지적된 것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차용 사실을 판단하는 데 표기에 반영한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였다. “차용어의 판별과 차용 방향 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음운론적 증거(The strongest evidence for loanword identification and the direction of borrowing comes from phonological criteria.)”(Campbell, L. 2004, p. 69)라는 데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표기된 한음과의 동일성 여부와 더불어 그 당시 동음의 성격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일례로 한음과 동일한 국어의 속음이 표기에 반영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근대 한음의 영향으로 속음이 생겨났고, 해당 속음을 포함한 어형이 국어사 문헌 속에 반영되었다면 이는 차용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차용어의 판정이나 범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원고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 3) 음차의 방식으로 표기된 어휘가 한국어 어휘체계 속에 편입되어 어원과 다른 새로운 표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호항(護項)과 ‘휘항(揮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護項’을 어원으로 하고 있으나 ‘호항’은 ‘護項’의 동음에 따른 표기인 반면, ‘휘항’은 ‘護項’을 음차하면서 ‘揮項’이라는 새로운 한자를 갖게 된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는 ‘호항’과 ‘휘항’이 한자 표기뿐만 아니라 의미도 차이가

기원적으로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대의 변화과정에서 의미 차이를 보이는 공존형들이다. 이들을 단순한 어형의 차이로 인식하기에는 형태·음운의 통시적 변화, 의미의 분화, 분포의 차이, 통사의 차이 등에서 나타나는 독자성을 설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한자 어원을 갖고 있으나 이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어휘들은 어휘 공존과 경쟁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용어의 체계적인 연구와 국어 어휘사의 전면적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차용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⁴⁾들은 국어사 문헌 속에 등장한 차용어들의 목록과 어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용어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차용어를 대상으로 한 통시적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고, 차용어를 기타 한자어나 고유어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이러한 연구 현황 속에서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차용어의 공존형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⁵⁾

따라서 이 글에서는 ‘架子’, ‘寶貝’,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공존형들의 의미 차이를 연구함으로써 고유어와 한자어뿐만 아니라 차용어 연구 역시 어휘 공존과 경쟁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架子’, ‘寶貝’,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를 각각 하나의 장으로 배치하여 차용어 유형별로 그들이 나타내는 의미 차이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할 것이다.

개별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국어사 자료⁶⁾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토대로 각각 어떤 어형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제시한 후에 공존형들이 나타내는 의미 차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⁷⁾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차용어 공존형들은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부류들이다. 복식 관련 차용어의 차차표기와 관련된 내용은 박부자의 『왕실발기에 나타난 복식 관련 어휘 차차표기의 한자 운용에 대한 연구』(『國語學』 第75輯, 국어학회, 2015)를 참조하길 바란다.

- 4) 차용어와 관련된 기존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金春月(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이 글의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는 趙世用의 『漢字語에서 改鑄된 歸化語 研究 - 15세기以後의 朝鮮漢字音과 中國 中原音으로 書寫된 漢字語를 中心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논저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으로 표기된 어휘들이 어떻게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동화되고 토착화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한 글이므로 이 글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 6) 이 글에서는 1차적으로 21세기 세종계획 역사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용례를 검토하고, 보다 다양한 성격의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필사본 고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예문과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2·3권의 예문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II. ‘架子’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II장에서는 ‘架子’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공존형들의 의미 차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어사 문헌 속에서 나타나는 ‘架子’ 관련 한음(漢音) 차용어와 한자(漢字) 차용어⁸⁾ 및 이들에서 음운 변동을 겪은 어형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형태별로 차용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분석한 후에 차용어의 유형에 따른 의미 차이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국어사 문헌 속에서 확인되는 ‘架子’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에는 ‘가즈’와 ‘갸즈, 개즈, 갸직’이 있다.⁹⁾ 이 중에서 ‘갸즈’는 李基文(1965/1991), 劉昌惇(1980), 蕭悅寧(2014)과 같은 논의에서 근대중국어 차용어(이 글에서 말하는 한음 차용어)일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으나 이 외의 ‘架子’ 관련 어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가즈’와 ‘갸즈, 개즈, 갸직’이 확인되는 문헌은 근대국어 시기 자료에 한정되어 나타나므로, 근대 시기 대표적인 운서 자료인 『어제규장전운(御製奎章全韻)』¹⁰⁾의 기록을 빌려 비슷한 시기 ‘架子’의 동음과 한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이 글에서 연구 대상들을 통해 포착되는 공통적인 변화과정에 대해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 글에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논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각각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으면서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일부가 분화된 의미를 보이거나 일부는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변화의 결과가 한쪽으로 통일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으나 한정된 세 가지 대상만으로 공통점을 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향후 더 많은 용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8) 논자에 따라 ‘직접 차용어, 간접 차용어’나 ‘차음어, 차형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金春月(2012)에 따라 ‘중국어 기원의 차용어’를 의미하는 말로 ‘한음 차용어’라는 용어를, 그리고 ‘중국어 기원의 한자어’를 의미하는 말로 ‘한자 차용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9) 『필사본 고어대사전』에서는 이와 관련된 형태로 ‘간즈’를 더 제시했는데, 이 경우 ‘ㄴ 첨가’가 일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문헌들에서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예문만으로는 ‘간즈’가 ‘가즈’의 이표기임을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일단은 보류하였다.

예: 울 밋히 호박이오 詹下 가의 박 심오고 담 近處의 동아 심어 간즈 호야 울너 보즈
(농가월령가, 6:438)

10) 『御製奎章全韻』(장서각 K1-194). ‘/’ 앞쪽은 한음 표기이고, 뒤쪽은 동음 표기이다(이하 같음).

(1)

架: 杙也, 起屋. 가/가 <1796, 御製奎章全韻, 禡>
子: 男稱, 爵名. 즈/즈 <1796, 御製奎章全韻, 紙>

위의 (1)에서 보듯이 ‘가즈’는 ‘架子’를 ‘동음+동음’의 방식으로 표기한 형태이고 ‘가즈’는 ‘한음+동음’의 방식으로 표기한 형태이며¹¹⁾, ‘개즈’와 ‘가직’은 ‘가즈’에 ‘y’가 결합된 것이다.¹²⁾ 즉, ‘가즈’, ‘개즈’, ‘가직’은 한음에 바탕을 둔 차용어이고 ‘가즈’는 한국 한자음, 즉 동음에 바탕을 둔 차용어이다.

문헌상의 등장 순서로 볼 때, ‘가즈’형은 18세기 초기 문헌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줄곧 사용되어왔고, ‘가즈’는 근대 후기의 번역 자료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가즈’와 공존하였다. 우선 ‘가즈’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 가. 薔薇 **가즈** 식과 木香 가게 뒤흘 도라 다니면 에 곳이 花園이라(轉過薔薇架邊 木香棚後, 這裡便是花園). <1721, 五倫全備諺解¹³⁾, 1:31b>
- 나. 매 **가즈**(鷹架) <1748, 同文類解, 下:12a>; 매 **가즈**(鷹架) <1790, 蒙語類解, 上:50a>; 매 **가즈**(鷹架子) <1779경, 漢清文鑑, 4:56>, 누룩 띄오느 **가즈**(盤架) <9:74>, 포도 **가즈**(葡萄架) <13:8>, 꽃 **가즈**(花架) <13:45>;撲拉(매 **가즈**의셔 느다. 박납) <19세기, 物名括¹⁴⁾-鳥獸類, 10b>
- 다. **가즈**: Perchoir du faucon privé(갈들여진 매의 햇대), **가직**: Lattres pour supporter le toit de la maison(집의 지붕을 받치기 위한 오리목) <1880, 한불주던¹⁵⁾, 138>
- 라. 동신점으로부터 턴교를 지나 길 쓴허진 곳의 애벽 스이의 남글 쏘즈 띄흘

11) ‘가즈’처럼 중국어의 접미사 ‘-자’만 동음으로 반영된 차용어로는 이 외에도 ‘징즈/당즈 [頂子], 휘즈[靴子], 야즈[牙子], 푸즈/프즈[鋪子]’ 등이 더 있다.

12) 국어사 문헌들 속에는 ‘가즈-개즈’처럼 ‘y’가 첨가 또는 탈락된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y’의 첨가와 탈락에 대해서는 金徑暄,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통시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 133-149쪽; 김주필,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國語學叢書 26)』(國語學會, 2015), 153-183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宋基中 해제, 『伍倫全備諺解』(奎章閣資料叢書 語學篇 五)(서울大學校奎章閣, 2005)

14) 규장각본(奎 12298) 참조.

15) 원문은 『한불주던』(동아시아개념어총서,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황호덕·이상현 편, 박문사, 2012a)을 참조했고, 현대어역은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지능형 개화기 한국어사전 연구총서 01)(과외의방전교회·켈릭스 클레르 리벨 지음, 이은령·김영주·윤애선 옮김, 소명출판, 2014)을 참조했다.

의지하여 가즈를 하고 아리 벽슈강가 근월을 님혀서시니 비로쇼 잔되라
(18-19세기, 명형정의록¹⁶⁾, 47:10b)

마. 즈방이 누에 올라가 두루 보니 좃녀 가즈는 서척뉴요 옷녀 가즈는 늑국
글월이며 모든 므을 간혀는 글월이라(子房凳樓閑玩, 只見左壁一帶書架上,
盡是石刻竹簡, 右壁一帶書架上, 盡是各處進來文策.)(1896, 西漢演義, 5:5)

위의 예문들에서 '가즈'는 '薔薇, 매, 포도, 꽃(←꽃)' 등에 후행하여
선행하는 대상들을 받쳐주는 "지지대"의 의미로 쓰였다. 특히 (2나)에서
'撲拉'에 대하여 "매 가즈의서 느다"라고 해석한 후에 '박납'이라는 대응
어휘를 제시하였다. '撲拉'에 대한 뜻풀이 속에 '가즈'가 쓰였다는 것은
'가즈'가 어휘 구성원 중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다)의 '가즈'와
'가직'도 "지지대"의 의미라는 것이 확인된다. (2마)에서는 문맥상 서책을
올려놓는 물건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 "선반" 정도의 의미일 것으로 파악된
다. 이러한 의미는 아래의 '가즈'형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동일한 문헌에서 관련된 형태가 공존할 경우 [] 속에 참조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하 같음).

(3)

가. 중간은 천당음/사복도 꽃튼 집이다/ 지었는디 쓰히 자단향 가즈 하나를 노코
들을 런마혀 크게 병풍을 민드러 들너시며(當中是穿堂, 當地放着一個紫
檀架子大理石屏風.)(19세기 말, 紅樓夢¹⁷⁾, 3:17)[cf. 장미 가즈(薔薇架)(31:76)]

나. 심등의 식각하디 예서 거웠다가는 쇼릭 곳 하면 큰 일이 날 거시니 바로
입을 쓴 취 니블의 마라 안고 너다라 브로 화계 우히 가 포도 가즈 밋히
니르러 월식이 여주흔 곳의 니블을 히티고 오욕고져 본즉(18-19세기, 화당
선형록¹⁸⁾, 9:10b)

다. 불상 탁즈와 경문과 북 가즈를 모다 밀쳐 버리고(18-19세기, 쾌심편¹⁹⁾,
10:48)

라. 이 사람의 집이 정히 향촌의 거주하나 가장 체면이 이시니 또 일기 외서당이
잇도다 하며 보되 방중이 유아침정하고 가즈 우히 서척이 만히 쓰히지라(別看
人家可是鄉村居住, 很有點樣式, 又有個外書房, 屋裏頭幽雅沈靜, 架兒上
書史成林.)(19세기 말-20세기 초, 忠烈小五義, 25:36b)

16) 『명형정의록(明行正義錄)』(장서각 권 K4-6805).

17) 권도경·박재연·김영 교주, 『紅樓夢』 上卷·下卷(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4).

18) 『화당선형록』(장서각 K4-6869).

19) 『쾌심편』(장서각 권 K4-6851).

(3가-3나)에서 ‘가즈’는 ‘자단향, 포도’와 함께 어울려 이들을 받치는 “지지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참조 부분에서처럼 동일한 문헌에서 ‘장미’와 함께 쓰인 용례도 보인다. (3다)는 ‘복’과 함께 어울려 복을 받치는 “틀”의 의미로 쓰였다. (3라)에서 ‘가즈’는 서책을 올려놓는 “선반”의 의미로 쓰였다. (2)과 (3)의 용례를 비교했을 때 “선반”이나 “지지대”와 같은 의미로 쓰일 경우 그 공기(共起)관계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4)의 용례에서처럼 “음식을 나르는 도구”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가즈/개즈’형만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4)

- 가. 食興: **가즈** <19세기, 物名括-舟車類, 19b>, 食興: **가즈** <1802, 物譜(舟車-車輿), 下:6b>²¹⁾, 食興: 昇食者. **개즈** <19세기 초, 廣物譜(二), 飲食部:1a>
 나. 너궁의서 너귀비 치제호는 위의 니락니 뉘흔 샤즈의 향축 제전을 밧드러 궁뇌 메어 [...] 당공이 황망이 외정의 듯글 여러 태감을 마즈 접디호며 쥬방의 본부호여 **가즈** 멘 궁노를 후디호라 호고 너척의 혼호를 깃거호니 <18-19세기, 완월회밍연²²⁾, 170:32a-32b>
 다. 이의 상방의 하지호여 어선 두 **가즈**로 뼈 위티스외게 스송호시니 진공이 턴은을 망극호여 전하의 나려 빅빅고두호여 황은을 슈스호디라<18-19세기, 명형정의록, 38:3a>[cf. 성찬 두 **가즈**<53:1b>]
 라. 스령 이 명 스환군 오 명 **가즈군** 스 명 각 목 일 필<18-19세기, 동궁마마풍용 필강호오신외상격블기, 11a>
 마. **가즈**: Plateau pour porter les mets(요리를 나르기 위한 큰 쟁반)<1880, 한불조언, 138>

(4가)에서는 ‘가즈/개즈’가 ‘食興’의 대응어로서 “음식을 나르는 수레”의 의미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4나)에서 ‘메-, 메이-’와 함께 쓰였을 뿐만 아니라 ‘쥬방(廚房)’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으로 보아 이때의 ‘가즈’는

20) 이 외에도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수사와 피수식 명사의 사이에 넣어 단위명사로 쓰인 용례도 발견된다. 이는 현대국어의 ‘가자’가 갖는 용법인데, “음식 나르는 도구”를 의미할 경우 (5)에서처럼 ‘가즈/개즈’로 나타난다는 것과 견주어볼 때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 뉴준이 즉시 군스로 호여곰 이십스 **가즈** 레블을 메어 드리니 <18-19세기, 폐심편, 30:14b-15a>

21) 『한글』 216'에 수록된 영인본과 색인 참조.

22) 『완월회밍연』(장서각 K4-6834).

“음식 나르는 도구”²³⁾일 것이다. (4다) 및 그 참조 부분에서 ‘어선(御膳)’, ‘성찬(盛饌)’ 등의 단어와 함께 출현하므로 이 또한 동일한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4라)에서 ‘가즈’는 ‘-군’과 결합하여 “음식 나르는 도구를 멘 사람”을 나타내기도 한다.²⁴⁾ “음식 나르는 도구”와 “선반”, “지지대” 의미가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선반”, “지지대”의 의미로 쓰였던 것이 “음식 나르는 도구”의 의미까지 획득하게 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²⁵⁾

23) 『필사본 고어대사전』에서 이와 같은 경우의 ‘가즈’의 의미에 대하여 “들것. 음식을 나르는 데 쓰는 들것”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표준』에서도 “음식을 나르는 데 쓰는 들것. 두 사람이 가마를 메듯이 하여 나른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4가)에서는 “음식 나르는 수레”를 의미하는 ‘食輿’에 대응되고 있어 ‘들것’이라고 기술한 기존 사전들의 서술이 정확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송희의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미술사학연구』 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120쪽)에서 제시한 〈화성원행반차도〉(1795)와 〈정리의례반차도〉(1797)의 ‘水刺架子’ 그림에서는 ‘水刺架子’가 수레 모양임이 확인된다. 이 글에 제시된 예문만으로는 이것이 ‘멜대, 들것, 수레’와 같은 형태들 중 어떤 것에 가까운지, 아니면 지시물이나 도구의 변화에 따른 의미의 변화를 경험한 대상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도구’로 표현하였다. 또한 국어사 자료에서는 ‘음식’을 나르는 도구로 쓰인 용례만 보이지만 이것이 문헌상의 제약일 가능성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의 생각이다. 그 일례로 ‘가즈’를 메는 사람을 나타내는 ‘架子軍’과 관련된 용례를 검토했을 때, ‘中宮殿別水刺架子軍’, ‘水刺架子軍’, ‘煎藥臘藥進上架子軍’, ‘水刺間架子軍’, ‘饌持來架子軍’, ‘祭物架子軍’처럼 ‘음식’과 관련지을 수 있는 용례가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음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가. 敎書書寫所用咨文紙, 黃筆, 眞墨, 令該曹進排. 安寶時, 函, 袱, 朱紅, 執事. 忠贊衛二人, 架子及架子軍四名, 令兵曹, 尙衣院, 繕工監進排定送. <景慕宮儀軌 卷之三, 癸亥冠禮儀>(한국고전종합DB 참조).

나. 又以兵曹言啓曰, 來十七日七次祈雨祭軍, 及方物封裝時架子軍, 竝二百十八名, 今當前期定送, 而各方處派定中抽出者, 僅得一百一十一名, 此外不足一百七名, 更無推移辦得之路, 不得已給價坊民調用之意, 敢啓.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숙종 5년 7월 15일 기사>(한국사DB 참조).

위의 예문에서 밑줄 친 내용을 보면 관례를 행할 때 ‘함, 보자기, 주홍’을 진배할 때의 사람, ‘방물’을 봉(封)할 때 동원되는 사람을 지시하는 단어로 모두 ‘架子軍’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표준』에서는 ‘가자군’과 ‘가자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즈’와 ‘가즈군’의 용례를 참조했을 때, ‘가자군’이 먼저일까, 아니면 ‘가자꾼’이 먼저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만약 이 글에서의 짐작대로라면 오히려 ‘가자꾼’이 원말이 되는 게 더 합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가자군(架子軍): ‘가자꾼’의 원말.

가자꾼(架▽子-): 가자로 음식을 나르는 사람.

25) 현대국어에서도 ‘가자’와 ‘가자’가 의미 차이를 보이면서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가자⁰⁴(架子): ① 가지가 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 세운 시렁.

② =가자「1」.

③ 『음악』 편종, 편경 따위를 달아 놓는 틀.

가자(架▽子): ① 음식을 나르는 데 쓰는 들것. 두 사람이 가마를 메듯이 하여 나른다.

능가자⁰⁴「2」.

Ⅲ. ‘寶貝’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Ⅲ장에서는 ‘寶貝’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공존형들의 의미 차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寶貝’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에는 ‘보빅/보비/보배/보뵈, 보패/보픽’이 있다. 이 중 ‘보비, 보뵈’는 李基文(1965/1991), 劉昌惇(1980), 蕭悅寧(2014)을 비롯한 논의들에서 근대중국어 차용어로 지적된 바가 있다.

(5)

가. 寶: 보빫 보. <1527, 訓蒙字會²⁶⁾, 中:15a>

貝: 자개 패. 卽肥子, 又曰海虵. <1527, 訓蒙字會, 中:15a>

나. 寶반貝빅 ○ 寶貝 <1690, 역어유해(진보), 下:1a>

다. 寶貝: 보픽(漢寶貝빅: 淸보오배; 蒙알타나; 倭다가라) <1778, 方言類釋²⁷⁾, 3:18b>

라. 寶: 珍也, 瑞也. 반/보 <1796, 御製奎章全韻, 皓>

貝: 介蟲, 貨也. 뷔/패 <1796, 御製奎章全韻, 泰>

위의 (5)만 참조했을 때 ‘보비’는 ‘동음+한음’의 결합이고 ‘보패’는 ‘동음+동음’의 결합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빅’이 ‘보비’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에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에 ‘·’가 비어두에서 ‘-’로 바뀌는 변화가 보인다는 점, 동일한 문헌에서 ‘보빅’과 ‘보비’가 같이 등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비’가 ‘보빅 > 보비’를 거쳐 생겨난 어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⁸⁾ 이와 관련하여 고본한(高本漢), 왕력(王力) 등의 연구에서 재구된 ‘貝’의 상고음이 [*pAii]인 것으로 보아, 한국어에서 ‘보빅’의 ‘빅’은 ‘貝’의 상고음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외에 ‘보뵈’는 ‘보비’에서 원순모음화를 겪은 형태이고 ‘보픽’과 ‘보배’는 ‘· > ㅍ’의 변화를 겪으면서 생겨난 형태로 판단된다.²⁹⁾

②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을 ‘1’에 실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

현대국어에서 ‘가자’는 “시령, 틀”과 같은 “지지대”의 의미와 “음식 나르는 들것”의 의미로, ‘가자’는 “음식 나르는 들것”의 의미와 단위명사로 쓰이고 있다. 『표준』에서 제시된 위의 내용들이 ‘가즈’와 ‘가즈’의 후대형의 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를 통하여 양자가 의미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6) 李基文 해제, 『訓蒙字會(東洋學叢書 第一輯)』(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1971).

27) 洪允杓 해제, 『方言類釋』(弘文閣, 1985).

28) 이는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중 ‘보비/보뵤’형은 몇몇 한정된 문헌에서만 출현하고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보빅’의 형태로 나타나며, 근대 시기에 이르면 ‘보뵤’라는 어형도 보이기 시작한다. ‘보픽/보뵤’는 18세기 중반부터 보이는 어형으로 번역 자료들 중심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분포나 빈도가 ‘보빅’에 미치지 못한다. 우선 ‘보빅’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6)

가. 우리 남지니 물 업스면 엇디 디넨고 반거름도 든디디 문흐리라 **모리** 데일 **보비**니(咱男子漢, 沒馬時怎麼過? 半步也行不得. 馬是第一**寶貝**.) <1517, 繡譯朴通事³⁰⁾, 上:43b>[cf. 안즌 앓뵤 윗 주레 **보빅**로 무민 수늬 노픈 곳 곳고(席面上, 寶粧高頂插花.)<上:5a>]

나. **小生**쑤 이 **보비** 아니라 네 니르라 世間の 므스 거시 이 **보비**노 末米穀이 이 **보비**니이다 **小生**이거시 이 **보비**라(也不是**寶**. 你說世間何物是**寶**. 米穀是**寶**.)<1721, 五倫全備諺解, 5:30b>[cf. 胡人の 스랑흐는 거슨 이 **보빅**어늘 **보빅** 우리 여긔 업고(胡人愛的是**寶**, **寶**我這裏沒有)<6:21b>], 이런 전츠로 吐谷虜人이 臣의 一家忠義를 감동흐여 棼득 改心易慮흐야 서러 거느려 **보빅**를 시러 贊을 드리니이다(因此吐谷虜人, 感臣一家忠義, 忽然改心易慮, 相率興**琛**獻贊.)<7:33a>]

다. 광위 이 **보빅**를 의양의 어뎃더니 근리 드르니 십상시 작란흐여 쇼테를 무리쳐 북방의 나갓다가 궁의 도라와 이 신를 일헛더니(光武得此**寶**於宜陽, 傳位至今, 近聞十常侍作亂, 劫少帝出北邙, 回宮失此**寶**.)<18-19세기, 毛宗崗本 三國志, 1:104>

라. **보비**: 寶. Trésor(보물)<1880, 한불조년, 335>[cf. **보빅**: 寶. Trésor(보물); chose précieuse(귀중한 것) <335>, **보빅롭다**: 寶. précieux(귀중하다) <335>, **보빅**: 寶貝. Trésor(보물); chose précieuse(귀중한 것); pierre précieuse(보석)<335>]

(6)에서 ‘보비’는 ‘寶/寶貝’의 대응어로 쓰였으며 (6가-라)에서 ‘보비’는 ‘말’, ‘米穀’, ‘식’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소중한 물건/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6가)와 (6나)에서 1]에 들어 있는 참조 부분과의

29) ‘보빅-보픽(寶貝)’뿐만 아니라 국어사 자료에는 ‘다경흐다-타경흐다(打更)’, ‘비접-피접(避接)’, ‘보육-포육(脯肉)’처럼 어두에서 평음과 격음의 표기가 유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휘쌍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어휘쌍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30) 朴在淵 校點, 『『老乞大』·『朴通事』原文·諺解 比較 資料』(鮮文大學校 中韓繡譯文獻研究所, 2003).

비교를 통하여 동일한 문헌 안에서 ‘보빅’와 ‘보뵈’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6라)에서 ‘보픽’ 항목에 “보석”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의 대응 표현이 더 들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보픽’와 관련된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겠지만, 이는 ‘보픽’가 “금은보화”의 의미로 쓰이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파악한 이 글의 관점과 일치한다. (7)은 ‘보뵈’의 용례이다.

(7)

- 가. 德으로 일삼으면 제 分인 줄 제 모로며 [...] 學文을 **보뵈**로 아라야 去取適中 亨리라(18-19세기, 靑丘永言-원, 24)
- 나. 내 니는 더러운 오슬 버서 브리고 **보뵈**엿 오슬 어더 니브미 亨亨디라(1776, 엄불보권문(해인사판), 38a)[cf. 지뵈 亨亨갓는 처즈와 지뵈 **보뵈**엿 슈고 당흔 시절에는 이 모를 亨디 몰홀로다(滿堂妻子與財珍 受苦當時不代身)(8b(王郎返魂傳))]

(7가)에서 ‘보뵈’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것으로 ‘學文’이 보배처럼 값진 것임을 가리킨다. (7나)에서 ‘보뵈’는 ‘보뵈+(옛)+웃’ 구성에 쓰이고 있으며, 참조 부분을 통하여 동일한 문헌에서 ‘보빅’형이 공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8)은 ‘보빅’의 예문이다.

(8)

- 가. 金銀 瑠璃 碑磬 瑪瑙 珊瑚 琥珀 眞珠 等 **보빅** 구헿야 바르래 드러갓다가 거른 브르미 부러(1447, 釋譜詳節, 21:2b)
- 나. 열 가짓 戒를 亨르치라 亨시니/+열 가짓 戒는 산 것 주기디 마름과 [...] 金銀 보빅 잡디 마름과+/ (1447, 釋譜詳節, 6:10a-10b)
- 다. 冠은 쓰는 거시니 寶冠은 **보빅**로 꾸문 冠이라(1447, 釋譜詳節, 3:5b)

(8)에서 ‘보빅’ 역시 “소중한 물건”의 의미로 해석이 되나, 문맥상 “소중한 물건”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금은보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속에서 ‘보뵈, 보뵈, 보빅’가 “소중한 물건”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보석”이라는 한정된 의미도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 (6라)의 참조 부분에서 확인했듯이 ‘보픽/보뵈’의 경우는 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 가. 종일토록 미췌 성찬을 디령헿고 찬난흔 **췌유 보픽** 슈식으로 그 맛음을

깃브게 하니(18-19세기, 現夢雙龍記, 7:52)

- 나. 경옥이 교시의 음분도주하니 범한을 스통하여 **금은 보퓌**를 다 도격을 하여 가지고 가를 드르니 분괴 가슴이 막히고(19세기 전반, 和氏忠孝錄, 26:51)
- 다. 즉시 문을 나니 쏜 험문을 드러 삼 층 단을 열거늘 드러가 보니 안호로는 세 층을 다 통하여시니 그 높기는 니를 거시 업고 전면으로 온갓 괴이흔 비단으로 주렴을 문드라 여라문을 드리워시되 **진주 보퓌**로 그을 꾸미고 각씩 실노 뉴소를 믹즈 마으로 주줄이 거러시니 혼 싯출 닷치릭 여러 발이 혼덕여 구슬이 서로 부딪잇는 소리 퓌옥 마하야 그 사치흔 거동을 담작할 거시오(19세기, 을병연행록, 6:96)
- 라. 황공적 고타디 네 빅뵤에 황가 상부의 드러가 진주 **보퓌**를 겁퓌하야 가져가다 하니 엇지 감히 이러트 범을 아디 못하느다(18세기, 후수호던, 14:17)

(9)의 예문에서 ‘보퓌’는 ‘주옥, 금은, 진주와 같은 “보석”, 즉 “금은보화”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보퓌’가 ‘보석’의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10)의 번역 자료에서 “소중한 물건”을 의미하는 ‘보퓌’의 예들도 확인된다. (10가)의 ‘보퓌’는 선행하는 ‘보물’을, 그리고 (10나)의 ‘보퓌’는 손오공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테인 ‘긴잡아’를 대신하는 말이다.

(10)

- 가. 과인이 텃즈 명도를 바다 널후로 더부러 이에 모다 천하 **보물**을 모도아 텃즈그 드리려 하니니 이제 공 등이 다 모다시니 각 : **보퓌**를 너여 경등을 분변하게 하라(寡人敬奉天子之命, 大開此會, 聚鬪天下**寶物**, 然後收集貢上. 今公等既齊, 合出**寶物**, 辨別重輕.)(1843년경, 春秋列國誌, 10:4)
- 나. 이 **보퓌**는 일홈을 **긴잡아**라 하니니 비록 이거시 숨기 혼갈갓튼 듯하나 쓰난 곳즌 각 : 다르니(此**寶**喚做**緊箍兒**, 雖是一樣三箇, 但只是用各不同.)(18-19세기, 啓明大 西遊記, 3:19)

국어사 자료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보퓌’와 ‘보퓌’가 나타나는 문맥의 경향성은 분명히 보인다. ‘보퓌’의 경우 ‘주옥 보퓌, 금은 보퓌’처럼 ‘금, 은, 옥, 진주’ 등과 같은 “금은보화”를 지칭하는 문맥에 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퓌’는 시기, 분포, 의미 등의 면에서 ‘보퓌’보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특징을 갖고 있다. ‘보퓌’가 이처럼 구체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11)과 같은 ‘보퓌+(옛/옛/예/옛/잇/의/에)+NP’ 구성에도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11)

- 가. 日月淨明德佛스 알꺃 하꺃 보빅옛 오스로 모매 감고<1447, 釋譜詳節, 20:10a>
- 가. 舍那身이 피샤 보빅 옷 니브샤 頓教를 뉘 아라 듣꺃브리<1449, 月印千江之曲, 35b>
- 나. 七寶로 莊嚴 호은 보빅옛 싸과 보빅옛 못과 보빅옛 즈게 남기 行列 잇게 셔며<1459, 月印釋譜, 8:22b>[cf. 이 想이 일면 極樂世界엿 보빅 즈게와 보빅 싸과 보빅 모슬 어들 보논다니<8:15a>]
- 다. □…□ 議論호되 이런 보빅옛 아들 □…□ <1459, 月印釋譜, 20:70a>
- 다. 精이논 빅도 넘적호고 보배 쏘을 빅엿도다 시버 더 식집의셔 호고 더리 위신코 잇다가 판잔저어 어일고 녀너를 호더니<숙명-44, 1663년,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보빅+(옛/옛/예/옛/잇/의/예)+NP’ 구성은 ‘보빅’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던 것이다.³¹⁾ (가)와 (가), 그리고 (다)와 (다)를 비교해보면 ‘보빅’와 ‘PT’의 사이에 나타나는 관형격 조사(굵은 글씨)는 생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보빅’가 ‘보빅’과 달리 ‘보빅+(옛/옛/예/옛/잇/의/예)+PT’ 구성에 쓰였다는 것은 (12)의 예문을 통해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12)

뉴구국은 바다 ㄴ온되 잇는 나라히오 보빅의 직물이 만흔 곳이오 아국 전나도 싸히셔 머디 아니하니 아국 초년은 서로 신스를 통호더니 중년의 뉴구국 왕이 바다의 표풍호야 왜국의 스로잡히니 그 세지 괴이호 보빅를 큰 빅의 ㄴ득이 싣고 장차 왜국으로 드러ㄴ 회뢰를 주어 그 아비를 살나오고져 호더니 호호 바람의 표박호야 제취의 다호니 이썩 제취 목스는 욕심이 만코 인심이 업슨 사람이라 그 보화를 탐호야 세즈를 죽이려 하니 그 세지 그 스연을 날너 인궁이 비되 좋시 듯디 아니호는디라 세지 크게 분호야 온갓 보빅를 바다히 즈오고 글을 지어 글오되<19세기, 을병연행록³²⁾, 6:118-119>

31) ‘보빅’의 뒤에 ‘-의’가 결합된 용례가 『예수성교전서』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는 ‘보빅’의 활약과 비교했을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예: 오직 허물알 티 업논고 양 갖튼 키리쓰도의 보빅의 피로 호느니라 더를 키벽전에 미리 과고<1887, 예수성교전서-피들전서, 1:19(607쪽)>[『예수성교전서』(정길남 편, 『開化期 國語資料集成-성서문헌편 7』, 박이정출판사, 1996) 참조.]

32) 『을병연행록』(장서각 K2-4532). 현전하는 한글본 『을병연행록』에는 송실대본과 장서각본 두 판본이 존재한다. 이 중 1829-1831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실대본이 시기상 앞선다. 송실대본 원문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재영·조규익·장경남·최인황, 『주해 을병연행록』(태학사, 1997)의 송실대본 주해서를 통하여 밑줄 친 부분이 각각 ‘보빅에 직물’, ‘보팩’, ‘보팩’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이 글에서 다른 장서각본과

같은 문맥의 다른 부분에서는 ‘보퓌’로 나오나 유독 ‘보빅+(옛/옛/예/옛/잇/의/예)+PT’ 구성에서는 ‘보빅의 지물’처럼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맥을 통하여 이때의 ‘보퓌’는 “보화”를 지시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보빅’은 (13)에서처럼 ‘보빅롭-/보빅롭-, 보빅로이’와 같은 파생어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퓌’와 차이를 보인다.

(13)

가. 싸히 靈호니 거름마다 雲山엿 풀 근고 좃이 **보빅로이**니 사름마다 바르랏
구슬 근도다(地靈步步雲山草僧寶人人滄海珠)(1481, 杜詩諺解, 9:30)

나. 망뷔 깃거 **보빅로이** 감초와 등한이 사름을 뵈지 아니터니(亡夫喜甚珍藏,
等閑不與人見.)(18-19세기, 禪眞逸史, 15:4)

다. 예도 츠돌이 무양기 되어 충실호오니 기특기특 **보빅롭**스오나 험찰 난감호오
니 민망호오며 아비는 고을에 고을하여 일산 밧고 온다고 온 사름드려 즈랑을
호오니 이리 웃습(김성일가-004, 1832년, 여강이씨(아내) → 김진화(남편))

라. 월야의 가만이 토장을 파니 두발 히골이 잇거늘 쇼장이 **보빅로운** 병의
담아와 원슈귀 북명호니이다(月夜悄悄掘開牆土, 果見有骸骨二副. 小將細
細檢出, 用寶瓶盛貯, 謹奉在此, 復元帥鈞命.)(18-19세기, 禪眞逸史,
14:28)

라: 五萬 梵天은 寶瓶 잡고(寶瓶은 보빅로 瓶아라+/二萬 魔妻는 寶縷 자바 侍衛호스브
니라/魔妻는 꿋겨서 가시오 寶縷는 보빅로 시리라+/(1447, 釋譜詳節, 3:2b)

(13라)와 해당 참조 부분에 들어 있는 예문을 비교했을 때 ‘寶瓶’이 ‘보빅로운 병’ 또는 ‘보빅로 瓶’에 대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³³⁾

모음 표기상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서각본의 예문을 제시하되, 이것이 나타내는 언어현상은 19세기를 아우르는 것으로 볼 것이다.
33) 『표준』에는 ‘보배’만 쓰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보패’는 ‘보배’의 원말이라고 되어 있다.

가. 보배: ①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② 아주 귀하고 소중한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보패: ‘보배’의 원말.

국어사 문헌에서 확인되는 순서를 참조했을 때, ‘보패’를 ‘보배’의 원말이라고 기술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보배’의 소급형인 ‘보빅’가 갖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때문에 결국은 의미 경쟁 속에서 ‘보배’만 남게 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IV.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IV장에서는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 공존형들의 의미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로는 ‘투슈’, ‘투셔’, ‘도셔’가 발견된다. 이 중 ‘투슈’, ‘투셔’는 李基文(1965/1991), 蕭悅寧(2014)을 비롯한 논의들에서 근대중국어 차용어로 언급되었다. 이들이 확인되는 문헌 또한 근대국어 자료에 한정되므로, 『어제규장전운』의 기록을 통하여 ‘圖書’의 동음과 한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圖: 謀也, 畫也. 투/도<1796, 御製奎章全韻, 虞>

書: 著也, 記也. 슈/서<1796, 御製奎章全韻, 魚>

(14)에서 보듯이 ‘투슈’는 ‘한음+한음’의 방식으로 표기된 형태이고, ‘투셔’는 ‘한음+동음’의 방식으로 표기된 형태이며, ‘도셔’는 ‘동음+동음’의 방식으로 표기된 형태이다. 이 중 ‘투셔’는 19세기 이후의 자료에서 주로 보이는 것으로 ‘투슈’의 둘째 음절 ‘슈’가 동음에 이끌려 ‘서(書)’로 표기된 어형이다. ‘투슈’, ‘투셔’, ‘도셔’는 모두 “도장”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확인된다. 아래에서 형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5)는 ‘투슈’와 관련된 용례이다.

(15)

가. 押子: **투슈**<1690, 譯語類解, 上:10a>

나. 押了: **투슈** 티다<1690, 譯語類解, 上:10a>

(15)에서 보듯이 ‘투슈’는 『역어유해』에서 두 용례가 보이는데, 명사로 쓰일 때 원문의 ‘押子’에 대응된다. (17가)의 『노걸대언해』에 ‘押子’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花押’의 대응어로 ‘도셔’가 쓰인 것으로 보아 이때의 ‘도셔’와 ‘투슈’는 비슷한 의미를 나타냈을 것이다. (15나)에서 ‘투슈’는 ‘타’와 공기하고 있다.

(16)

가. 套署: 凡糊封處墨印之. **투셔**. <19세기 초, 廣才物譜, 臣道部:3a>

- 나. 투셔 치다: 打圖書. Cachet particulier(개인의 도장), sceau particulier(개인의 도장), Poser son cachet(자신의 도장을 찍다). <1880, 한불즈던, 522>[cf. 도서: 圖書. Cachet(도장), sceau gravé(새겨진 도장)<496>]
- 다. 투셔: s. 圖書 A seal; a stamp. (찍다) (치다) See 도서. <1897, 韓英字典³⁴⁾, 998>[cf. 도서: s. 圖書 A private seal or stamp—as that hearing one’s name. (삭이다) (치다) (찍다) See 투셔. <243>]
- 투셔 찍다: 's. 야은 To stamp with a seal. See 도서 치다. <1897, 韓英字典, 998>
- 라. 방물 늑십 태를 다시 붕과홀시 부운으로 디브리 직샤의셔 헝가지로 간검혀여
 문져 글즈로 일일히 구별하여 쓸히 빠흔 후 상통스 마두 두 놈을 차덩혀여
 주장혀야 간검혀고 붕과소입유든 공석과 결과혀는 노히 심히 만흐며 닢봉의는
 투셔를 치고 외봉의는 다 인을 처 붕과혀여 직샤 월낭의 빠히고 본부장교로
 혀여금 주야슈직을 시기더라 <19세기, 戊午燕行錄³⁵⁾, 1:9a-9b>

(16)에서 보듯이 ‘투셔’는 ‘치다, 찍다, 삭이다’ 등과 주로 어울리며 “도장”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위의 ‘투슈’에서도 똑같이 관찰되던 용법이며, (16나)나 (16다)처럼 동일한 문헌에서 ‘도서’와 ‘투셔’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도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16라)의 ‘닉봉’에는 ‘투셔’를 치고 ‘외봉’에는 ‘인’을 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투셔’와 ‘인’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냈을 것이다. (17)은 ‘도서’가 등장하는 예문이다.

(17)

- 가. 외은 이는 스승이 免帖 ㅎ나홀 주느니 그 免帖 우희 세 번 마즈물 면혀라
 쓰고 스승이 우희 도서 두느니라 (背念過的, 師傅與免帖一箇. 那免帖上寫着
 ‘免打三下’, 師傅上頭畫着花押.) <1670, 老乞大諺解, 상:4a>
- 나. 圖書: 도서(漢圖書) <1778, 方言類釋, 2:8a>

(17가)와 (17나)에서 ‘도서’는 ‘花押’과 ‘圖書’의 대응어로 쓰인다. (17나)의 한음 표기를 통하여 ‘투슈’가 ‘圖書’의 한음을 바탕으로 한 형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예들만 보았을 때 ‘투슈’의 후대형인 ‘투셔’와 ‘도서’ 사이에는 의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의 『雅言覺非』³⁶⁾에 (18)과 같은 기록이 있어서 주목된다.

34) 황호덕·이상현 편, 『한영즈던』(동아시아개념어총서,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박문사, 2012b).

35)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장서각 K2-4518).

36) 金鍾權 譯註, 『雅言覺非』(一志社, 1976).

(18)

圖書誤翻爲套署 /+華音本平音. 今俗木刻者謂之套署. 石刻者謂之圖書+ /〈雅言覺非〉[cf. 圖書謂之套書 /+華音云平音+ /〈雅言指瑕〉]

위 증언에는 ‘圖書’가 ‘투서(套署)’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내용 외에도 밑줄 친 부분에서 “현재 세속에서는 나무에 삭인 것은 ‘套署’라고 하고 돌에 삭인 것은 ‘圖書’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국어사 자료에서도 증언과 일치한 용례가 발견된다.

(19)

- 가. 포공이 늙의 손의 죽은 줄을 아더니 문득 보니 썩 우히 흐 낫 적은 **남그로 삭인 투서** 이시디 이는 뵈 뜨는 디 표호는 거시여늘(包公知被人謀死, 忽見衣帶上係一個木刻小小**印子**, 却是賣布的記號.)〈19세기, 包公演義-木印 7:20〉
- 가. 포공이 죽시 **나모 투서**를 너여 공니를 시겨 뵈의 친 **투서**와 마초와 보니 흐 말도 그르디 아닌디라(包公復取木**印記**對之, 一些不差.)〈19세기, 包公演義-木印, 7:24〉
- 나. 죠고만 접척이 〳서 제목의 인보라 흐여시니 이는 당경의 친히 삭인 **도서**를 기록하미니 **슈정 도서**와 **구리 도서**와 **상야 도서**를 다 각 〳 표호앗더라 〈19세기, 을병연행록, 11:111〉
- 나. 탁즈 우히 **도서들** 여러히 노혀 브야호로 삭이는지라 다 남그로 우리를 빠 돌흘 끼위시디 안히 소음을 너혀 상치 아니케 흐고 두 편이 쏘야기를 박아 요동치 아니케 흐였더라 〈19세기, 을병연행록, 11:110-111〉
- 나. 일전의 은 흐 낭 옛 돈을 주고 **슈정 도서들** 하나홀 사시디 삭일 사람을 었지 못호앗더니 김복세 널오디 뉴리창 당경의 국법이 2장 정교호야 아국 도서를 년 〳이 무슈히 삭인다 흐거늘 드디여 김복서를 맞져 삭이기를 청하라 흐고 〈19세기, 을병연행록, 11:38-39〉

(19가-가)에서 ‘투서’는 각각 원문의 ‘印子’와 ‘印記’에 대응된다. ‘印子’와 ‘印記’가 “도장”의 의미와 “흔적”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어만 으로 ‘투서’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19가)의 “이는 뵈 뜨는 디 표호는 거시여늘”에 대응되는 한문 원문이 “却是賣布的記號”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印子’와 ‘印記’는 “記號”에 대응한 의미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모/남 그’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문맥을 통하여 ‘투서’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나-나)는 ‘도서’와 관련된 용어이다. 예문 (19나)에서 ‘도서는 슈정, 구리, 상야’ 등과 공기하였고, (19나-19나)에서와 같이 ‘돌’과 결합하여 ‘도서돌’이라는 합성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정약용의 증언과 국어사 자료에 출현하는 용례를 근거로 하였을 때, ‘투서’와 ‘도서’는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구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⁷⁾ 어원인 ‘圖書’와 달리 어형이 공존하면서 의미가 보다 세분되어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³⁸⁾

V. 맺음말

이상 ‘架子, 寶貝,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차용어들의 국어사 문헌 속에서 보이는 의미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① ‘가즈/개즈/가직’와 ‘가즈’는 각각 ‘架子’를 어원으로 하는 한음 차용어와 한자 차용어의 공존형으로서 이 중 ‘개즈/가직’는 ‘가예’가 첨가된 것이다. ‘가즈’형이 국어사 문헌 속에 먼저 등장하였으

37)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아래의 예문을 제공해주면서 정약용의 증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셨다.

套書: 本朝. 用方圓木石, 篆刻謹封·魚雁等字, 印於書封者, 謂之套書. <권28, 東韓譯語-釋器>

위의 내용에 따르면, ‘套書’는 네모 또는 둥근 모양의 나무 또는 돌에 ‘謹封’(“삼가 봉함”을 의미)이나 ‘魚雁’(“편지”를 의미)과 같은 글자를 새겨서 봉투에 찍는 것이다. 즉, 재료가 돌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으며 ‘근봉’이나 ‘어안’ 등과 같은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套書(투서)’라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 측면에서 ‘도서’와 ‘투서’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나-나³⁾의 ‘도서’의 경우 『음병연횡축』의 전반적인 문맥을 고려했을 때, ‘근봉’이나 ‘어안’과 같은 특정된 글자보다는 “본인의 이름”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증언 자료에서 포착된 ‘만들어진 재료의 차이’와 『古今釋林』에서 제시한 ‘새겨진 내용 차이’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존재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공존쌍들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의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東韓譯語』의 원문은 『古今釋林』(이기문 해제, 아세아문화사, 1977)을 참조하고, ‘魚雁’의 유래 및 관련 어휘에 대해서는 하영희 외 편저, 『옛편지 낱말사전』(돌베개, 2011), 357쪽을 참조하였다.

38) 『표준』에도 ‘투서’와 ‘도서’가 별개의 표제어로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가. 투서: ‘도장17(圖章)’을 달리 이르는 말. 한자를 빌려 ‘套書·套書’로 적기도 한다.

나. 도서(圖書): 조선 시대에, 예조에서 대마도주나 여진인에게 준, 동으로 만든 도장. 이 도장이 찍힌 서계(書契)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우리나라와의 통상을 허락하였다. ≍ 인신05 「2」.

『표준』에 기술된 내용이 언어 변화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이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양자의 의미가 구분되어 쓰였음이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현대국어와 같은 의미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며, “선반, 시렁, 틀” 등을 의미할 때는 ‘가즈’와 ‘가즈’가 모두 쓰인 반면, “음식을 나르는 도구”를 의미할 때는 ‘가즈’만 쓰였다.

- ② ‘보비/보뵈/보빅/보배’와 ‘보픽/보괘’는 ‘寶貝’를 어원으로 하는 한음 차용어와 한자 차용어이다. 이 외에 ‘보빅’은 ‘寶貝’의 근대한음에서 비롯된 표기이거나 ‘보빅 > 보빅’의 변화를 통해 생긴 어형일 가능성이 있고, ‘보뵈’는 ‘보빅’에서 원순모음화를 겪은 형태이며, ‘보배’와 ‘보픽’은 ‘·’의 변화로 생긴 형태이다. ‘보빅/보뵈/보빅/보배’가 “소중한 물건”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반면, ‘보픽/보괘’는 “보석”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 외에도 ‘보빅’류는 ‘보빅롭-, 보빅롭-’과 같은 파행어 형성 및 ‘보빅+(옛/옛/옛/잇/의/예/에)+PT’ 구성에도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보괘/보픽’은 그렇지 못하다. 즉, ‘보괘/보픽’은 그 분포, 시기, 의미에서 ‘보빅’보다 제한적인 쓰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현대국어에서 ‘보배’만 남게 된 결과로 이어진다.
- ③ ‘투슈/투셔’와 ‘도셔’는 ‘圖書’를 어원으로 하는 한음 차용어와 한자 차용어로서 이 중 ‘투셔’는 ‘투슈’의 둘째 음절이 동음으로 바뀐 형태이다. 그리고 ‘투셔’로 쓰일 경우에 한하여 ‘套書’나 ‘套書’로 차자표기를 하기도 한다. 근대시기의 증언 자료 및 문장 속에 드러난 단어들과의 공기관계에 의하여 판단했을 때, ‘투셔’와 ‘도셔’는 재료에 따라 달리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원인 ‘圖書’와 달리 의미 영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고찰한 대상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용어 공존형들이 형태 변화에서 보여주는 경향성과 복합어의 형성과정에서 보여주는 어휘 내부 요소의 배치, 나아가 문헌의 성격에 따른 형태 공존의 양상 및 의미 분화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향후 더 많은 공존형들과의 비교·검토 속에서 공존형들이 보여주는 통시적인 변화 및 변화 속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도경·백재연·김영 교주, 『紅樓夢』 上卷·下卷.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4.
- 權仁瀚,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改訂版). 제이앤씨, 2009.
- 金徑暄,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통시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金鍾權 譯註, 『雅言覺非』. 一志社, 1976.
- 김주필,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國語學叢書 26). 國語學會, 2015, 153-219쪽.
- 金春月, 「낙선재본 『홍루몽』의 중국어 어휘 차용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2.
- 南豊鉉, 「15世紀 諺解 文獻에 나타난 正音 表記의 中國系 借用 語辭 考察」. 『國語國文學』 제39-40권, 국어국문학회, 1968a, 39-86쪽.
- _____, 「中國語 借用語의 有緣性的 獲得과 喪失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41권, 국어국문학회, 1968b, 127-128쪽.
- _____, 「中國語 借用에 있어서 直接借用과 間接借用의 問題에 對하여-初刊 '朴通事'를 中心으로 하여」.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1968c, 213-223쪽.
- _____, 「15世紀 國語의 漢字語 借用考」. 『國文學論集』 5-6,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2a, 3-22쪽.
- _____, 「中世國語의 中國語 借用 研究-單音節 體言을 中心으로」. 『論文集』 6, 漢陽大學校, 1972b, 59-84쪽.
- _____, 「國語 속의 借用語-古代國語에서 近代國語까지」. 『국어생활』 2, 국어연구소, 1985, 6-22쪽.
- 盧明姬, 「現代國語 異種 語彙의 類義의 共存 樣相」. 『語文研究』 제3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33-62쪽.
- 박부자, 「'누비' 관련 명칭의 국어사적 고찰」. 『韓國服飾』 31호, 檀國大學校 石宙善 紀念博物館, 2013, 111-135쪽.
- _____, 「왕실발기에 나타난 복식 관련 어휘 차자표기의 한자 운용에 대한 연구」. 『國語學』 第75輯, 국어학회, 2015, 335-372쪽.
- 박재연, 「조선시대 공안협소설 번역본의 연구 - 낙선재본 『포공연의』와 구할자본 『염자왕전』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25輯, 39-71쪽.
- 朴在淵 校點, 『『老乞大』·『朴通事』原文·諺解 比較 資料』.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3.
- 박재연 주편, 『필사본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圖書出版學古房, 2010.
- 朴在淵·金瑛·李玖淑, 『紅樓夢 古語辭典-홍루몽계 필사본 번역소설에 나타난 어휘를 중심으로』.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4.

- 蕭悅寧, 『韓國語 近代漢音系 借用語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소재영·조규익·장경남·최인황, 『주해 음병연행록』. 태학사, 1997.
- 宋基中 해제, 『伍倫全備診解』(奎章閣資料叢書 語學篇 五). 서울대학교奎章閣, 2005.
- 연규동, 『近代國語 語彙集 研究-類解類 譯學書を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吳鍾甲, 「18世紀 國語 漢字音 表記-韻書의 字音을 中心으로」. 『語文學』 第50輯, 한국어문학회, 1989, 105-128쪽.
- 劉昌惇, 『語彙史研究』(國語國文學叢書). 二友出版社, 1980.
- 李基文, 「近世中國語 借用語에 대하여」. 『亞細亞研究』 8-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193-204쪽[재수록: 李基文,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1991].
- _____, 「語彙 借用에 대한 一考察」. 『언어』 제3권 제1호, 한국언어학회, 1978, 19-31쪽.
- _____, 「借用語 研究의 方法」. 『國語學新研究 II-若泉 金敏洙教授 華甲紀念』, 塔出版社, 1986, 787-799쪽.
- 李基文 해제, 『訓蒙字會』(東洋學叢書 第一輯).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1971.
- _____, 『古今釋林』. 아세아문화사, 1977.
- 이준환,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 성모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中世·近代·開化期の 韻書 및 字書 편찬의 역사」. 『東洋學』 第57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4, 159-186쪽.
- 이지영, 「사전 편찬사의 관점에서 본 『韓佛字典』의 특징 - 근대국어의 유희류 및 19세기의 『國漢會語』, 『韓英字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73-92쪽.
- 정경일, 『규장전운·전운옥편』, 신구문화사, 2008.
- _____, 「한자음 표기와 한글의 위상」. 『한국어학』 제42집, 한국어학회, 2009, 1-25쪽.
- 정길남 편, 『開化期 國語資料集成-성서문헌편 7』. 박이정출판사, 1996.
- 제송희,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73, 한국미술사학회, 2012, 101-132쪽.
- 趙世用, 『漢字語에서 改鑄된 歸化語 研究-15세기 以後의 朝鮮漢字音과 中國 中原音으로 書寫된 漢字語를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조정아,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복식명 연구」. 『중세국어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2015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2015, 201-223쪽.

- 파리의외방전교회 · 펠릭스 클레르 리델 지음, 이은령 · 김영주 · 윤애선 옮김,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지능형 개화기 한국어사전 연구총서 01). 소명출판, 2014.
- 페데리코 마시니 지, 이정재 역, 『중국어 어휘의 형성과 국가어의 발전: 1840-1898,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2005(원서명: Federico Masini,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 Monograph Series number 6*, Berkeley: Project on Linguistic Analysi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3).
- 하영희 외 편저, 『옛편지 낱말사전』. 돌베개, 2011.
- 洪允杓 해제, 『方言類釋』. 弘文閣, 1985.
- 황문환,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 역락, 2015.
- 황문환 · 임치균 · 전경목 · 조정아 · 황은영 엮음, 『조선시대 한글편지 관독자료집』 1 · 2 · 3권. 역락, 2013.
- 황호덕 · 이상현 편, 『한불즈던』(동아시아개념어총서,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박문사, 2012a.
- _____, 『한영즈던』(동아시아개념어총서,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박문사, 2012b.

Campbell, L., *Historical Linguistics—An Introduction*. The MIT Press, 2004.

국 문 요 약

이 글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으면서 한음 차용어와 한자 차용어가 공존하는 ‘가즈/개즈/가직, 가즈(架子)’, ‘보비/보뵤/보빅/보배, 보픽/보괘(寶貝)’, ‘투슈/투셔, 도서(圖書)’를 대상으로, 이들이 국어사 문헌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 차이에 대해 살핀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이들 공존형이 어떻게 의미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가지고 공존해왔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들 공존형은 어원과 달리 의미가 더욱 세분되기도 하고, 새로운 한자 표기를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즈/개즈/가직, 보픽/보괘’가 보다 세분된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가즈, 보비/보뵤/보빅/보배’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투셔’와 ‘도셔’는 재료에 따라 의미 영역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원인 ‘圖書’와 달리 의미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6. 3. 20.

심사일 2016. 4. 17.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어원(etymology), 차용어(loanwords), 한음 차용어(Kan-eum loanwords), 한자 차용어(Kan-ja loanwords), 형태(forms), 형태 공존(coexistence of forms), 의미(meaning), 의미 차이(semantic differences)

A Study on the Meaning Differentiation of Chinese Loanwords of the Same Origins

Jin, Chun-yu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differentiation of '가즈/개즈/가직, 가즈(架子)', '보빅/보피/보빅/보배, 보픽/보패(寶貝)', '투스/투셔, 도셔(圖書)' which derived from the same origins and coexist in forms of Kan-eum loanwords(한음 차용어) and Kan-ja loanwords(한자 차용어) based on Korean historical materials. This paper will find out how could these loanwords carry seman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yet coexist with each other. Unlike their origins, these loanwords are more subdivided in terms of meaning. They even had their own Chinese characters. Moreover, in comparison, it is shown that '가즈/개즈/가직, 보픽/보패' carry more subdivided meanings while '가즈, 보빅/보피/보빅/보배' carry more comprehensive meanings. As for '투스' and '도셔', they share the semantic scope according to their component materials. Different from their origin of '圖書', this pair of loadwords subdivided their meaning in detail.